‘강동오 케익’으로 유명한 토종 제빵회사

담양 ‘파밍 하우스’ 새 도약 꿈꾼다

쌀·밀 등 친환경 국산 곡물만 사용

전남도 ‘향토기업 육성 대상’ 선정

‘강동오 케익’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토종 베이커리 ‘파밍 하우스(Farming House·대표 강준구·50)’가 농업개방시대를 맞아 올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국산 곡물만을 재료로 사용, 인근 농업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파밍 하우스는 최근 전남도로부터 ‘향토기업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전략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담양군 가산리에 위치한 파밍 하우스는 지난 2002년 설립과 함께 ‘강동오 케익’이라는 브랜드를 등에 업고 호남권 빵시장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수천만원에 불과하던 연매출이 3년여만에 억대를 넘어섰고, 지금은 10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같은 강동오 케익의 ‘힘’은 토종이라는 ‘언덕’에서 비롯됐다. 빵재료로 들어가는 30t 규모의 친환경쌀을 담양지역에서 사들였고, 우리밀을 비롯해 복분자·딸기 등도 전남관내에서 모조리 사들였다.

전남도 제과·제빵부문 기능장 1호인 동생 강동오씨(44)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곡물 외에 별다른 화학약품을 혼합하지 않는 ‘직원들의 손으로 만든 무방부제 친환경제품’이라는 마케팅 전략 역시 매출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강준구 대표는 “10여종의 케익만을 주력제품으로 만들어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도 주효했다”면서 “매출이 크게 신경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밍 하우스는 지난해 국산 곡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선정된데 이어, 전남도의 명품인증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주여성 7명을 포함해 15명의 직원을 보유한 파밍하우스는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만 25개의 매장을 갖추고 있다. 영업사원을 한명도 두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전략을 구사, 지역내 대규모 쇼핑센터에서도 메이저들을 제치고 입점하는 놀라운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전남도로부터 ‘향토음식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파밍 하우스는 2억5천만원의 지원자금으로 생산설비를 확장, 전북권에도 매장을 신설할 방침이다.

강 대표는 “메이저들의 제품에 절대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서 “유기농산물만을 고집, 국내 최고의 건강식품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강준구(왼쪽 두번째) 대표가 담양 가산리 생산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케익을 만들고 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kwangju.co.kr

월출산 국립공원 ‘자연 숲’ 복원

외래수종 솎아베기…생태 개선 사업

인공조림지를 고유의 자연경관으로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의 인공조림지가 우리 고유의 자연 숲으로 복원된다.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갑동)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인공조림지를 우리나라 고유의 자연 숲으로 복원하기 위한 ‘숲 생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사업 추진기간은 8월부터 오는 12월말까지로 인공조림지의 천연림화를 유도,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생물종 다양성을 높이고 국립공원 고유의 자연경관을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천연림과는 이질적인 인공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부식생은 그대로 유지하고 리기다소나무, 편백나무와 같은 외래수종 등에 대해 솎아베기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근로희망자 모집과정에서 연인원 4천600여명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박갑동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개인 소유의 인공조림지에 대해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에 대해 입목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연 숲을 복원할 경우 생태계 보전, 휴양림 조성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미혼 동거부부 전통혼례 신청하세요”

전남도농업박물관 개관 16주년 기념

9월 13일까지 접수 … 무료로 치러줘

전라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은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박물관 야외전시장 혼례청에서 치러지게 될 ‘개관 16주년 기념 무료 전통혼례 시연행사’에 참가할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다.

참가대상은 전남지역민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 그동안 결혼식을 미뤄온 미혼 동거부부이며, 신청(추천)은 개인 또는 관계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등이 신청서식을 작성해 전자문서·우편·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박물관은 9월 13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받아 자체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행사 당일 초청해 무료 전통혼례식을 치러줄 계획이다.

이 행사는 농업박물관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관 기념일을 전후해 예로부터 관혼상제 가운데 가장 경사스럽게 치러졌던 전통혼례 문화의 계승발전과 어려운 지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이미지 확대 및 관람객들에게 보다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다.

농업박물관은 혼례 당일 박물관 야외 모정 앞에 혼례청을 차려놓고 고증을 통해 확인된 옛 방식을 토대로 예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축하객과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목포 문화예술 공연단체인 극단 ‘갯돌’의 흥겨운 공연이 함께 어우러진다. 문의(061)462-2796~9.

/영암=이상휴기자 lsh@

나주시 ‘뉴보텍 공장’ 유치

코스닥 상장 기업 … 30여명 고용창출 효과

동수농공단지에 30억 투자

나주시가 상하수도용 파이프를 전문생산하는 (주)뉴보텍과 19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다.

(주)뉴보텍은 1990년 설립돼 고강성 PVC 이중벽관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해 신기술 인증을 받는 등 지난 2002년 코스탁에 상장됐다. 뉴보텍은 나주시와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나주시 동수농공단지에 30여억원을 투자해 4천㎡ 규모의 공장을 신설, 3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도에 본사를 둔 뉴보텍은 정부의 친환경녹색성장산업인 환경산업을 확장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호남지역의 제품수요를 나주공장에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거희 뉴보텍 사장은 “국내 상하수도 관거업계의 선도기업으로 나주공장 신설을 통해 세계적인 환경기업으로 자리메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지속적인 투자로 신공법 및 신제품 개발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보텍은 하수도용의 고강성 PVC 이중벽관과 메가오수받이·소형맨홀 등을 주품목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인 일본의 세키스이화학공업(주)와 기술을 제휴해 빗물을 이용한 우수저류조를 생산, 녹색성장산업의 선두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진도군 승용차 홀짝제

진도군이 최근 유가상황 등이 안정세로 전환됨에 따라 17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선택요일제로 바꿨다.

기존에 시행됐던 홀짝제는 날짜가 홀수인 날이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공공기관 출입이 가능하고 날짜가 짝수인 날이면 반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선택 요일제의 경우 월~금요일 중 자신이 지정한 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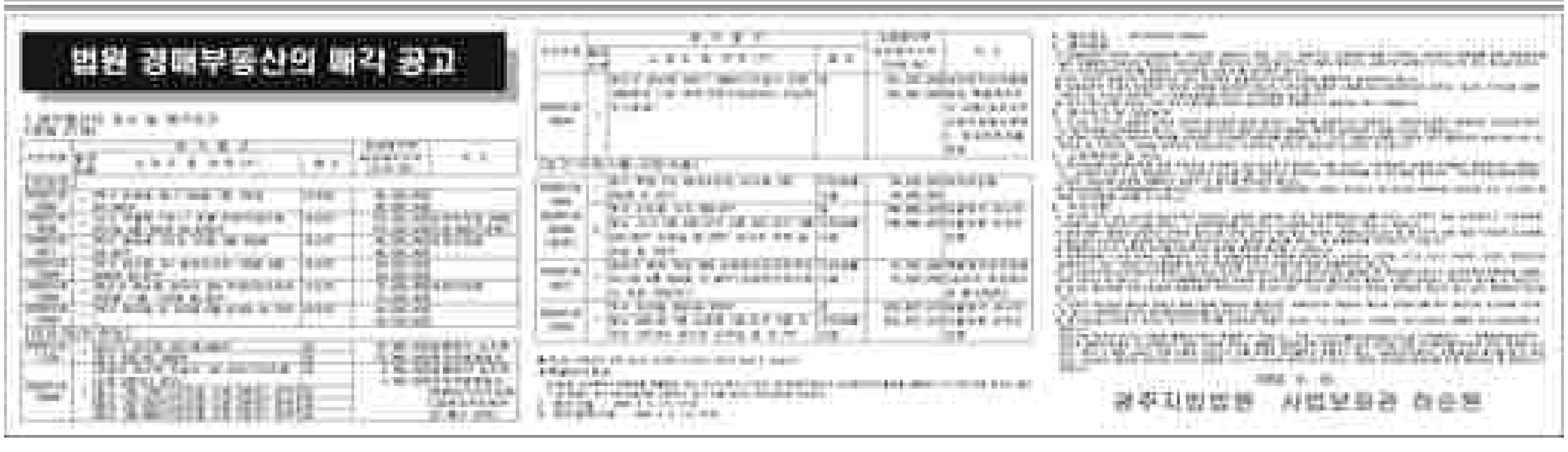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 농협 치매예방교육

65세 이상 농업인 120여명 대상

농협 해남군지부(지부장 이길재)는 최근 정훈교 한신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장을 초청, 해남군내 65세 이상의 농업인 조합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해남지역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노인성 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자가예방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길재 지부장은 “농업·농촌이 어려울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조합원들이 건강을 지키며 장수하는 것이 돌아오는 내일의 농촌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 조합원들의 건강한 생활을 당부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